

최근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에 관한 보도가 자주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다. 과거 경제개발이 되기 이전에도 학사 실업자들이 많아서 고등 롬펜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의 현실은 보다 심각한 데가 있어 보인다. 그 숫자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학졸업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졸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취직시험 조차도 수많은 대학졸업자들이 몰려들어 결국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단순한 화제거리 이상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새삼 생각되는 것이 인구론이다. 물론 벨더스의 고전적 인구론은 오늘날의 선진제국에 관한 한 현실성이 없어졌음은 분명하다. 비록 아프리카제국을 비롯하여 많은 후진국의 국민들이 기아 선상에서 허덕인다고는 하나 미국을 위시한 식량 부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전부 나누어 준다면 전세계 인구가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고 하며, 심지어 서구에서는 젊은 층의 출산기피 경향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그러나 이른바 “로마클럽”에 의해 주창된 현대 인구론에 의하면 여전히 연구문제의 심각성은 상존하고 있다. 현대 인구론에서는 단순히 식량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의 확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도시화에 의한 인구집중과 각종 환경파괴 및 오염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큰 사회문제로 되어 있고, 인간성마저 황폐화 하는 징후가 여려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고전적 인구론과 현대인구론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도하게 된다. 근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쌀이 남아 돈다고는 하나, 그것은 증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식생활의 변화가 큰 이유로 되어 있고, 밀이나 사료용 곡물의 수입에 매년 막대

한 외화를 소비해야 하며 그 액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만약 식량이 무기화 되는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그 충격이 석유파동의 경우보다도 더욱 강력한 것으로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은 보다 심각한 것이다.

남한의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두세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나 6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개발이 불균형성장 이론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온 결과 공업화에 따른 부작용은 우리의 좁은 국토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高級人力과 情報産業

朴 鍾 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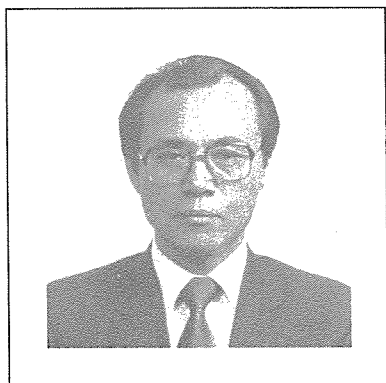
〈韓國정보처리專門家협회 會長〉

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것이 우리 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아마도 전국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에서 볼 때 환경대책의 중요성이 최근에야 국가정책적인 관심사의 하나로 등장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마저 든다.

그러나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은 더더욱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촌은 노령화·고령화 되어 일손구하기 조차도 어려운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도시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이 취업난에서 달리고 있는 현상도 바로 그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와 같은 난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있을 수 없고 보면 오늘을 사는 기성세대들이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지만 그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가장 풍부한 자원인 인적자원의 활용을 질·량면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후세들을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량의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치 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과 같은 실패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비교우위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산업정책의 큰 방향은 “정보혁명에 의한 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른바 정보산업을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너무 논리의 비약이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로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현대사회의 발전동향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를

능동적으로 지배·활용하려는 노력만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정보라는 자원이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부족한 자원의 최적활용과 배분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입장에 있으며 이는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경우에만 실현가능한 것이고, 또한 정보자원의 지역적 안배가 공중정보 통신망에 의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장기적으로 인구집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산업이야말로 철저하게 기술집약적이며 자원 절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 파괴나 오염의 문제가 최소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외화가득률은 100%까지 기대할 수 있다. 더우기 기술집약적 산업인 만큼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현재에도 정보산업 분야에서는 양질의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추세에 있다.

이상에서 두서없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정보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현재와 같은 고급인력의 취업난을 상당한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된다. 물론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화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산업정책의 수립과 함께 교육정책의 방향도 이에 대비할 수 있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과학기술인들은 우리의 국가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과 함께 학교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보관련 과학기술의 교육과 보급에 진력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흔쾌히 응해야만 할 시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정보관련 과학기술도 결국은 한 사회의 총화된 힘의 소산이라고 볼 때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꽃피우기 어려운 것이므로 더욱 과학기술인 모두의 분발과 동참이 기대되는 것이다.